

내달 개관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 운영법인 출범

목포시, 각계인사 16명 참여 발기인 총회

명예이사장 권노갑·이사장 전운철 선임

내달 15일 개관 예정인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됐다. 목포시는 22일 서울에서 재단법인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갖고, 명예

이사장에 권노갑 김대중 기념사업회장을, 이사장에 전운철 전 감사원장(사진)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설립 발기인으로는 정종득 목포시장을 비롯해 전국인사 5명, 김 대



통령 기념사업 관련 인사 4명, 목포 시민대표 4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전운철 초대 이사장은 "한국 최초 노벨상기념관을 수상한 김 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목포에 건립된 기념관이 국내 최고 기념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임원진들 모두가 힘과 역량을 한 데 모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재단법인은 ▲독자기로부터 기부금품 모금 ▲전시 유품, 전시물 확보, 특별기획 전시 ▲김 대통령 가치와 철학, 업적에 대한 교육·연구 활동 지원 ▲국내외 저명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전남도에 재단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해 6월 중 법인 등기를 마치고 안전행정부에 기부금품 모금 등록을 할 방침이다. 정종득 시장은 "목포는 김 대통령의 정신과 사상의 터전"이라며 "기념관은 민주, 인권, 평화의 대명사인 김 대통령의 업적을 함축한 공간인 만큼 후손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산 교육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신안 공무원들 6년만에 '한마음 힐링캠프'

군공무원노조·전공노 신안군지부 갈등 씻고 화합 한자리

신안군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신안군지부의 공무원들이 6년간의 갈등을 씻고 오는 25일 신안군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마음 힐링 캠프'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서로 화합해 청렴한 공직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자는 한 뜻을 모아 얹해읍 신안군노조전문

요양원에서 송공산 분재공원까지 약 7.5km 해변길 한마음 힐링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송공산 전사분재공원 물양장에서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구성됐다. 양 노조는 지난 2007년 한마음 체육대회 후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이날 행사를 통

해 양 노조는 서로 상생하고 조합원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집행부와외의 소통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노조신안군지부 임종철 지부장은 "이번 행사로 오후에는 송공산 전사분재공원 물양장에서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구성했다. 양 노조는 지난 2007년 한마음 체육대회 후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해까지 개최되지 못했다. 이날 행사를 통

함평 해보농공단지 조기분양 호조

삼원산업과 입주계약 체결...에어컨 부품공장 설립

함평군이 해보농공단지에 대해 조기분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업들과 잇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관련부서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장건축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22일 "최근 삼성전자 협력사(1차 벤더)로 삼성전자, 대한공조 등

에 에어컨 부품을 납품해 360여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는 (주)삼원산업과 해보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해보농공단에 올해 말까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만6881㎡ 대지에, 연면적 1만3224㎡ 규모의 에어컨 부품 생산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입주 면적이 해보농공단지 전체면적 17만3429㎡의 15.5%에 이르러 해보농공단지 조기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보농공단은 다음달까지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일대에 ▲산업시설용지 17만3429㎡ ▲지원시설용지 1788㎡ ▲공공시설용지 5만 1878㎡ ▲녹지용지 1만 8335㎡ 등 총 24만 5430㎡ 규모로 조성된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진도 해안가 부유쓰레기 수거 진도군 임회면 공무원, 유관기관, 어업인, 수산단체 등이 지난 21일 청소구역을 지정해 해안가에 방치된 페어구, 어망과 떠밀려온 페스티로폼 등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들은 연중 비닷가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전북



남원시, 외래 동·식물 퇴치 나서

산란기 배스·블루길 인공산란장 50곳 설치 주요 하천서 제거 작업

남원시는 생태계를 위협하고 수생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동·식물로 부터 토종어종과 식물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퇴치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2일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의 산란기에 맞춰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수정란 제거를 위해 배스가 많이 서식하는 요천대교 주변 하천에 인공산란장 50개를 설치, 알을 낳도록 유도해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배스 알 66만 여개를 제거했고 올해는 최근까지 100만 여개를 수거, 유해 어종인 배스의 원천적인 퇴치작업에 효과를 올리고 있다. 시는 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일 현재 배스 2t을 수매하기도 했다. <사진> 남원시는 수생태계의 기능 보전을 위하여 오는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동남참개, 참 다슬기, 붕어 등 토종치어를 방류,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또 전문가와 남원시민의 의견을 모아 선정된 남원 깃대어종인 왕종개개체수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요천 등 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패지풀과 예기수영 등 외래식물 제거해 토종식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력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남원시 박병수 환경과장은 "비교적 수생태계가 잘 보존된 요천 등 섬진강 일원에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토종 어류·식물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부안 특화작목 '오디' 첫 출하

1kg당 9000원~1만2000원 이상 거래...농가소득 기대

부안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인 '오디'가 올해 처음 수확돼 출하가 본격화됐다. 지난 21일 보안면 상입석리 임한석씨 농가포장에서는 김호수 군수와 권태오 오디농 산·학·연협력단장 등 전문가, 선도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디 첫 수확행사가 열렸다. <사진> 부안지역의 비가림 하우스 포장은 220동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오디는 노지 오디보다 10여일 빠르게 수확된다. 소득 역시 하우스 재배의 경우 10a당 800만원 이상으로, 일반재배 시 35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하우스 재배 친환경 오디는 kg당 9000원~1만2000원 이상 가격대에 거래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안의 오디병이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첫 수확행사를 계기로 출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품질 좋은 오디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디병은 황산화, 황염증, 황암 및 피부 탄력 증진물질로 알려진 레스베라트롤이 평균 100g당 78mg으로 다량 함유돼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전주 옛 도심 활성화 '도시재생거점센터' 짓는다

시, 100억 투입 2015년 설립

낙후한 전북 전주 옛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거점센터가 들어선다. 전주시는 22일 "총 100억원을 들여 올해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4층 규모의 도시재생거점센터를 노송동 천

사마을에 짓는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옛 도시를 경제·문화·환경적으로 재생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문화를 보존·활용하는 한편 원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전주=박근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 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내일부터 3500원으로

부안군은 22일 "오는 24일부터 지역 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을 인상,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3년2개월 만의 택시요금 인상은 도내지역

시·군 간 요금의 균형 유지와 이용객 감소,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등으로 불가피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택시요금에 이에 따라 전라북도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에 의거해 기본요금(2km)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주행요금(2km 이후)은 148m 당 160원,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5초 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목포상의 '일자리 창출' 선도

중기청년취업인턴제 등 5가지 사업 추진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지역 일자리 창출 선도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목포상의는 22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중견 인력재취업 지원 사업,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시니어 인턴십 등 5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평균 200여명의 청년인력을 기업체에 취업시키고 있는 목포상의는 배이비부부세대인 40세 이상 중장년 퇴직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 종합 진직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50세 이상 장년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인건비의 50%(최대 80만원)를 지원하는 '중견 인력재취업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3년째 운영 중인 '시니어 인턴십'은 인턴 형태 연수 형태로 구분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턴형의 경우 최대 6개월간 270만원(한 달 45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목포상의의 관계자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각 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지역에서 보다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안교육청, 초·중·고교 담당자 70여명 참석

장학업무 활성화 컨설팅 연찬회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차과식)은 지난 21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원)감과 업무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컨설팅 장학 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가졌다. 차과식 교육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자발성에 기초한 컨설팅 장학 활성화로 교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은 교육자 모두의 책무이며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자"고 당부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이날 특별강사로 초빙된 목포 용호초교 최희수 교장은 "학교컨설팅의 목표는 자생적 활력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 교육의 질적 개선 및 향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학교의 내적 교육역량 강화와 학습공동체 문화 형성을 통해 학교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는 컨설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는 업무 담당자들에게 학교 컨설팅의 제반 과정과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단신

내달 5일 '지리산둘레길 한바퀴 이어 걷기'

산림청은 지난 21일 출범식과 동시에 하동~구례~남원~함양~산청~하동 등을 다음달 5일까지 16일 간 한바퀴 도는 '지리산둘레길 한바퀴 이어 걷기'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한다. 이 길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산림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총 거리 274km의 국내 최초의 장거리 둘레길이다. 남원시(46km), 구례군(77km), 경남 함양군(23km), 산청군(60km), 하동군(68km) 3개도 5개시·군 117개 마을을 연결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와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고창군 직무스트레스 완화 '힐링캠프' 운영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형준)는 최근 관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민원 처리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는 지난 9월과 15일 고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신세계요양원을 방문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현장을 견학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직무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형준 센터장은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삶의 질이 높은 고창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순창군, 영농철 농기계 안전캠페인

순창군은 지난 21일 순창장남을 맞아 제20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순창읍 지역자율방재단원과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불철 농기계 사고, 알보면 큰일 나요!'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순창읍사

무소에서 재래시장까지 걸으며 진행됐다. 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기계 안전관리요령이 자세히 기재된 팸플릿과 물티슈를 배부하면서 주민 홍보에 나섰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2억 지원

정읍시는 22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상품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시비 9750만원(50%)과 자부담 9750만원(50%) 등 총 1억9500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저온저장고 29동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원예작물 생산가능 노지재배 4000㎡ 이상 또는 시설하우스 2000㎡ 이상 농가로, 읍 초 신청을 받아 29개 농가를 선정할 바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